

## 북방정책이 한국인의 대미관에 미친 영향 -대미인식 기제의 이원화 현상을 중심으로-

권용립  
경성대 정외과

### 1. 문제 제기

1980년 이후의 한국에서 대학가의 반정부운동 논리와 명분을 터전으로 해서 급격히 고양되기 시작한 반미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부터는 반정부운동의 범주에 들지 않는 한국 사회 일반의 대미 정서의 악화로까지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40여년간 논리보다는 정서, 갈등보다는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을 관념하던 태도가 급격히 반전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는 일견 명백하다.<sup>1)</sup>

먼저, 1970년대 후반부터 해방전후사를 재조명하면서 미국에 대한 기존의 무비판적 인식을 불식하려는 지적 흐름이 존재해 왔으며 이것이 광주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불붙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으로 접속되면서 미국이 식민제국이나(식민지 반봉건사회론 내지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 아니면 남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예속적 동맹권력이나(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라는 논쟁이 대학을 위시한 저항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 논쟁의 결말에 관계 없이 '미국'과 '한국민중'의 역사적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단정했다. 이러한 '과학적' 인식이 사회 일반의 대미 인식까지 급격하게 반전시킬 수는 없었지만 대학이 한국사회에서 지녀온 정치적 위상과 관련되어 반미주의라는, 적어도 남한사회에서는 수십년간 생소했던 태도가 서서히 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만든 단초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1980년의 광주항쟁 진압 및 이후 5공화국 정권의 억압 체제를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지원함으로써 10.26 이후 군사정권체제의 종식을 통해 문민정치와 민주화를 기대하던 우리 사회의 기대를 배반했다는 인식은 구태여 미국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일반사회의 식자층에 이르기까지 파급되기 시작했다.

다음, 1980년대 중반부터는 통상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현실적 관계가 남한 사회 일반의 이익과 상치되는 면들을 노정하면서 기존의 국지적이고 논리적인 반미인식이 현실적이고

(1) 1980년 이후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의 대두 과정과 원인을 논한 것으로는 장달중, "반미주의의 정치사회적 뿌리", 정종욱 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방송사업단, 1989, 279-299. 그리고 Jinwung Kim, "Recent Anti-Americanism in South Korea: The Causes," *Asian Survey*, 29-8(Aug. 1989), 749-763등을 참조.

구체적인 대미인식으로 전개되는 틀을 만든다. 한국산 대미수출품에 대한 덤핑 판정, 301조를 통한 개방압력에서 현안인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대한통상개방 압력은 미국을 논리적으로 인식할 필요를 느끼지 않던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혁운동과 전혀 연관 없는 기업의 대미인식까지 다소간 바꾸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또 한국내 미국기업의 부당행위, 미군의 범죄 행위, 반도덕적 행위 등이 사회문제로 보도되고 주한 미군의 핵무기 문제, 미군 기지의 점용 문제, 주한 미군의 비용 분담 문제, 한미행정협정의 일방적 성격 등이 정치적, 군사적 현안으로 관심을 모으게 되면서 한미관계의 현안이 대중화되는 경향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즉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한미관계의 현안이 정치적 차원으로 치부되기만 하던 과거와 달리 사회, 경제적 차원으로 대중화되었고 공존 일변도의 논리로 강변되던 양국관계가 사실상 현안에 따라서 갈등의 관계로 비치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객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된 것이다. 이를 사회전반적인 반미주의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적어도 '친미'라는 신화 내지는 정서가 별다른 도전을 공개적으로 받지도 않고 또 반미주의 내지 미국연방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비판이 사회 전반적인 호응은 받지 못하던 1980년대 이전까지의 사회적 분위기와 비교하면 어쨌든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해설이 필요한 현상이다.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관에 북방정책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봐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 생긴다. 대개 1980년 이후 한국의 반미주의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들이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미관계 고유 문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광주, 통상개방압력 등을 반미적 대미인식 등장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인의 대미관 변화는 이러한 양국간의 고유 현안을 통해서만 야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북방정책의 가시화 이후 대미관이 이전의 대미관과 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대미관 논의들이 단순히 친미에서 반미로의 전환이라는 현상 자체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데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이 글은 변화하는 대미관의 내용 자체 뿐만 아니라 북방정책 이후 한국인의 대미관 변화를 근거에서 유도한 대미인식의 기제가 어떤 것인지, 또 이전의 대미인식 기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사전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인의 대미관 변화가 갖는 의미에 관해서이다. 한미관계의 시작을 1882년부터 잡으면 양국관계의 역사는 110여년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적인 양국관계, 특히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양국관계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약 40여년의 역사를 갖는다. 이 불균형은 양국관계의 특징을 몇 가지 초래했다. 하나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이미지가 지극히 일방적인 양태와 성격을 보였다는 점이다. 미국, 특히 미국인에게 한국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sup>2)</sup>

(2) 미국인들의 한국관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은 윌리엄 왓츠(William Watts), 「미국인의 한국관」, 정종욱 외, 「앞의 책」(1989), 334-358참조. 그리고 도날드 C. 헬만, 「미국의 대한인식: 태도와 정책」, 구영록 외, 「한국과 미국: 과거, 현재, 미래」 박영사, 1983, 71-86을 보라. 또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미국의 대한정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기별로 예시한 것으로는, 최종석, 「미국인의 대한이미지의 논리」, 구영록 외, 「위의 책」, 89-106을 참조. 이 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통적 무지 내지는 무관심이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나 국민적 정서에 있어서 한국에게는 미국과 미국인이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선호되는 국가요 국민이었다. 이는 한국 국가 형성상의 과정에서부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별다른 무리없이 호의적으로 형성되고 헌법에서부터 기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 문화제도와 관행의 척도를 미국에서부터 찾는 미국화의 과정이 진행된 결과였고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심화와 이러한 미국화의 과정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부흥을 담보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 역대정권의 내정의 정통성까지 현실적으로 담보하는 형국을 띠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현대사와 미국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규정하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 이후 한국 내 반미주의의 대두 내지 한국인의 미구관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 주도로 지탱되어 오던 양국 관계의 불균형성이 궁극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표시이며 나아가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현상이다. 특히 미국의 한반도 관련 이익은 정치, 군사적인 것으로 남아있지만 남한 관련 이익은 이제 경제적인 차원까지 포괄하게 됨으로써 한국 내정 및 대외정책과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한국정부의 외교다변화로 한국 내정의 주요 명분인 통일 외교에 현실적으로 관련되는 외세가 미국 일본도에서 다변화됨으로써 적어도 외교적인 면에서의 양국 관계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대미관 변화는 단순히 '친미에서 반미로'라는 식의 단선적인 전개과정을 밟은 것으로 이해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대미관 변화는 곧 양국관계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둘째, '북방정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 글은 6공이후 1987년부터 정책기조로 가시화된 일련의 대 동구권, 북한 정책을 지칭한다. 따라서 1973년부터라고 얘기되는 원초적 북방정책은 최근의 대미인식의 변화와 직접 연관시키지 않는다.

세째, '한국인'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미국의 인상은 보도매체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인상을 급전시키는 데 주역을 했던 것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지식집단이다. 따라서 논의의 적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인'은 언론이나 기타 출판물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을 관심있게 보고 논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직업이나 재산 등 계급적인 기준으로는 정확히 범주화할 수 없는 성격의 집단을 상징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보는 관점이나 미국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이 출판매체와 보도매체, 그리고 대학과 일부 노동 현장 등 언설의 교환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지적인 장소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기 이전에 정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네째, '대미관'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흔히 대미인식 또는 대미관을 막연히 미국에 대한 인상 내지는 견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전체적 인상과 한국에 관련된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상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미관이라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미국의 대한 정책에서부터 미국인의 사소하고도 개인적인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보도의 내용과 신문사설이나 칼럼 등에 보인 대미 자세, 언론에 보도된 대학가, 운동세력의 반미 구호와 논리, 출판매체를 통한 반미 논리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지만 대체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 또는 기대와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인상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재되어 있는 집단적 의식을 막연히 한국인의 대미인

식 또는 대미관이라고 이름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의에서 제시하는 내정이미지(한국정치 내부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에 대한 이미지를 근거로 미국을 평가해온 전통적 태도)에 근거한 한국인의 대미인식과 외교이미지(미국을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강대국의 하나로 보는 인식태도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 자체의 문명적 특징과 윤리성을 파악하는 태도)에 근거한 대미인식 모두가 이 점에서 모호하다. 따라서 한국인의 대미인식을 논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인상과 미국연방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인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양자를 명쾌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다섯째, 흔히 대미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추적하는데 사실상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실이 있다. 먼저, 한국인의 대미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행하는 미국에 대한 설문 결과의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런 설문 결과의 발표되면서 일종의 영합효과 내지는 동조효과를 수반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의 결과대로 선도해 나가는 측면도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다. 보도나 출판매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대개 이런 양상을 띠고 사회 전체로 파급되어 나간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대미인식을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추적하는 것이 실증적인 의의를 갖는다는 전제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도 설문조사의 결과를 나열해서 대미인식의 변화를 수리적으로 추적하기보다는 대미인식을 선도해 나가는 '대미인식론' 분석에 중점을 둘 것이며 대미인식의 윤곽을 잡기 위해서 이 글에서 방증 자료로 참조하는 몇 가지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취급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의 결과 그 자체가 바로 한국인의 대미인식의 모두를 집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논의를 전개시킨다. 이는 특히 설문조사의 방법이나 설문 내용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설문 결과의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상식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 2. 북방정책 이전까지의 대미관 형성과 변화의 기제 - '內政이미지'를 통한 미국관

해방 이후 1980년의 광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 상황에서 반미주의 내지 반미 정서는 공간적으로는 사회 일부에 국한된 것이었고 시간적으로는 한미관계의 특정 계기적 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성격이 강했다. 달리 말하면 구태여 친미라는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에 대해 친화력이 있는 것이었다. 물론 1980년 이후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정서는 논리나 믿음에 근거한 친미라기보다는 미국과 한국 정권의 구조적 친화성에 기인한 '신화'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었지만 현상 자체만을 보면 한국은 어쨌든 1970년대 이후 제3세계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주의의 무풍지대였으며 미국으로서도 한국만은 다른 나라(이란 등)와 달리 반미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 박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할만 했다.<sup>3)</sup> 이러한 친미 신화의 추동력은 한국의 일방적인 대미 의존성에 기인하는 것이었고 또 이 의존성은 양국간의 군사, 경제적 관계에서

(3) 이삼성, "광주민중봉기와 미국의 역할-광주를 통해 본 미국의 제3세계정책, 그 성격의 총체적 인식", 박영호, 김광식 외 「한미관계사」 실천문화사, 1990, 42.

나오는 것이기도 했지만<sup>4)</sup> 한국 내정의 구조에 미국이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 때문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형성된 한국인 일반의 대미관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와 관련된 미국의 긍정적 영향력(원조, 과학기술, 한국전쟁)의 반사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전반적인 규모의 반미주의의 등장과 확산 이전까지 한국인의 일반적 대미관은 미국 연방정부의 대한정책 자체에 대한 사실 인식 및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일반에 걸쳐 형성된 이미지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국가기구에 의한 미국관의 작위적 형성까지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외국'의 대명사였고 '외국'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범이고 귀감이었다. 이러한 미국관은 한국민족주의의 추동력으로 기능하는 대외적 대결의식의 목표를 북한과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유도한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었다. 친미는 반공과 내면적으로 동일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반미가 곧 친공은 아니었지만.

개괄적으로나마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친미의 조류와 반미의 조류를 나눈다면 친미 시대의 친미는 한국정치사회의 내적 구조와 현상에 투영된 미국의 이미지에 근거한 것이었지 미국과의 국제정치적 관계에 근거한 이미지는 아니었다. 이 점은 1980년 이전의 국지적이고 간헐적인 반미의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팡주 이전의 반미의식은 억압적인 군부정권을 미국이 지지하는 데 대한 반발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한국현대사와 미국과의 숙명적 대립관계를 설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일제 강점 후 미국을 조선 독립운동의 후원자로 기대하던 인사들이 루즈벨트(T. Roosevelt)나 윌슨 대통령 정부에 대해 가졌던 환멸도 이데올로기로서의 반미가 아닌 배신감이었고<sup>5)</sup> 1950년대까지 소수의 좌익을 제외한 남한의 '적대적인 외부'는 공산권, 북한, 일본이었다. 그러나 박정권 등장 이후로 한국정부의 군사억압체제를 지지하는 미국의 일련의 정책은 남한내의 반정부 세력이 억압적 통치세력을 비호하는 외세로서의 미국을 비난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했다. 곧 미국인들이 보기에든 박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박정권이 반정부세력을 억압하는 것을 워싱턴이 묵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부 차원의) 국익은 일치했지만 한국민족주의가 민중적 차원에서 반미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던 것이다.<sup>6)</sup> 단순화의 위험은 있지만 제3공화국 시대의 민주화운동 세력, 반군부 저항세력은 한일협정, 월남 파병 등의 대외적 문제에서부터 유신과 같은 내정의 계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할이 한국민족주의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sup>7)</sup> 그러나 한국 내정

(4) 이 점은 어떤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논하든간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미관계의 특징이다. 예컨대, 한승주, "우호와 동맹의 실상-한미정치관계의 과거, 현재와 미래", 정종욱 외, 「앞의 책」, (1989)중에서 59-70과 Sung-Joo H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the Future," Sung-Joo Han and G. Curtis, eds., *The U.S.-South Korean Alliance: Evolving Patterns in Security Relations* (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1983)을 참조.

(5) Edward A. Olsen, "Security Implications of Economic and Political Na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7-4 (Winter, 1988), 41; 장을병, "한미간의 정치상황", 문동환, 임재경 외 「한국과 미국-현대 한미관계의 비판적 인식」 실천문화사, 1986, 105 참조.

(6) Olsen, 앞의 논문(1988), 43; idem., "Korean Politics and U.S. Policy: Higher Pressure and Lower Profile," *Asian Survey*, 27-8 (Aug. 1987), 850.

(7) 1980년 이후 뿐만 아니라 1960년 4월혁명을 전후한 학생들의 반미의식과 움직임을 단편적이거나 한국민족주의와 연관해서 서술한 것으로는 서중석,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제14호(1991년, 가을), 128-167을 참조. 또 기독교청년공동자료집 기획물로 나온 「한미관

상황과 관련된 미국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 민주 세력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원해 주고 한국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나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카터의 인권외교). 곧, 미국은 한국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단순한 외국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미국적 가치를 통해 관념되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내화되기 시작한 일부 혁신적 지식인과 정치 세력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나 우려는 한국의 대미인식사 자체를 본다면 그 뿌리가 깊고<sup>8)</sup> 이미 눈여겨 볼만한 비중을 갖는 현상이었지만<sup>9)</sup> 당시의 사회 전체적 친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미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물론 대상국의 여론에 비교적 민감한 체질인 미국(정부)에게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역설적 무관심’이 6.25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형상화 된 <반공=민주=혈맹, 남침 위협의 보호자로서의 미국=경제적 번영의 모델이며 한국 경제개발의 원조자인 미국= 서구화, 개발, 선진화 등 모든 국가적 가치의 척도 공급자로서의 미국이라는 신화를 당분간 온존시킨 힘이었음은 당연하다. 긍정적 대미관의 단순 재생산이 계속된 것은 보도, 출판매체를 통해 암시되는 미국의 인상이 대개 미국의 문물에 접했던 사람들을 거쳤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0)</sup> 그러나 1970년대까지의 대미관이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친화력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지식인들 중에는 미국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교정하려는 의식을 강하게 표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11)</sup>

광주항쟁 이후에 대두하기 시작한 반미적 미국관도 ‘내정이미지를 통한 미국 인식’이라는 점에서는 80년대 이전의 미국관과 형성의 기제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물론 80년대의 미국관이 반미주의의 대두로 변질하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곧 반미주의의 사회적 만연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친미의 관성이 사회적으로 온존해 있어 친미와 반미가 혼재해 있는 형국이었다. 반미주의는 학생 세력 중심의 변혁이론의 틀 안에서 이론적 논거와 명분을 획득했고 반미주의의 고양 속에서 친미와 반미의 유형까지 운위될 정도로 미국에 대한 친화적 관성(달리 말하면 무지, 무비판)을 벗어나자는 반성이 강하게 일어났다.<sup>12)</sup> ‘광주’ 이후의 반미

계의 재조명-예속과 저항의 역사』(1986)는 해방 이후의 한미관계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 (8) 이점에서 광주를 친미와 반미의 분기점으로 지나치게 절대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있다. 예컨대 “80년 광주가 있기 전까지 8.15는 우리에게 곧 해방이었고 미군 역시 해방군으로 기록되었다...”는 등의 서술이다. 류상영,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 류상영 외, 『한미관계의 재인식 1』 (두리, 1990), 13을 보라.
- (9) 해방 이후 반미주의의 기원을 미국이 해방 직후에 추구한 우익 편향적 정책에서 찾으면서 커밍스의 논지를 인용하고 있는 입장을 참조할 것. 이삼성, 앞의 논문(1990), 94-105.
- (10) 한국 지배층내에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친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미인맥이 형성되어 왔고 이들이 교육문화,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부분에 걸쳐 미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한국의 정책을 친미 일변도로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는, 조호연, “한국내 친미인맥의 계보”, 장상환 외, 『한미관계의 재인식 2』 (두리, 1991), 101-123을 보라.
- (11) 『사상계』에 실린 미국관련 글들이 주로 이런 역할을 했다. 또 1980년 이후의 글이나 대답이기는 하지만 반미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전인 1970년대의 중견 지식인들이 한미간의 관계와 상호 이미지에 나타나는 불균형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었음을 보게 해주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김덕형, “한국과 미국 1백년에 문제 있다” 『월간조선』 1982년 8월호. 그리고, “반미냐, 친미냐” 『신동아』 1982년 6월호 등.
- (12) 예컨대 친미관을 ‘파쇼형 친미관’과 ‘동정형 친미관’으로, 또 반미관을 ‘시민민주주의적 반미관’과 ‘민중주의적 반미관’으로 나누어 보면서 광주항쟁 이후의 반미주의에 변별적인 성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삼성, 앞의 책(1990), 45-51을 보라.

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제3세계 전반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를 연결시킨다. 반미주의로서의 민족, 민중주의를 제3세계 일반의 민중적 반미주의와 연결시킨다. 이 점에서 내정이미지에만 국한된 기존의 인식 기제를 일견 벗어날 가능성을 보인다.
2. 1970년대까지의 미국에 대한 내정이미지가 현상을 기준으로 생성된 반면 80년 이후의 반미주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해서 통일과 민주라는 명분을 기반으로 하는 변혁운동 논리의 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내정의 역사와 정치적 운명(제 계기)을 미국이 어떻게 좌우해 왔는가를 중심으로 미국을 본다는 점에서, 또 한국과 한반도 전체의 정치적 운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의도와 역할을 축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내정이미지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친미와 반미의 뿌리가 해방 직후의 한국 내정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있고 반미주의 현상도 광주항쟁을 계기로 나온 것이니만큼 친미든 반미든 한국 지식, 정치세력의 대미관이 내정이미지를 탈피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광주 이후의 반미는 다음과 같이 내정이미지에 기반한 대미관의 강화를 초래한다. 첫째, 대미관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이라는 한국정치의 진로 문제와 최초로 연관되었다는 점이다. 논쟁의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본다면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을 식민제국으로 보는 식민지반자본주의론(NL)과 한국파시즘의 동맹권력으로 보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PD)으로 대별되어 왔는데 양자간에 존재하는 변혁의 논리와 처방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관계없이 미국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가 성격을 규정지어 온 결정적 변수라는 인식이 '과학적'으로 확립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이전까지의 반미가 주로 한미관계를 양국관계를 점철했던 정치적인 사건들, 즉 '현상'의 틀 속에서 서술하는 양식을 띤 것이라면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반미주의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외정책 속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 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국가 형성 시기의 미국(미군정)의 정책 분석에서 출발해서 식민지적 자본주의를 구조적으로 강제해 온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판, 극복해서 한국사회의 변혁을 처방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반미주의의 대미관은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 자체에 대한 인상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의 대한정책이 한국의 정치적 운명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 자체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축으로 하는 반미적 인식 경향이 출판을 통해 확산되지만 대체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政治體)의 문명, 문화적 특징보다는 한국정치의 운명과 미국연방정부의 대한정책과의 악연(?)이 반미주의의 대미인식을 결정한 셈이었다. 둘째, 광주항쟁의 무력진압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사실을 둘러싼 공방이 가지는 성격에서도 미국관의 내정이미지적 성격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반미주의를 다룬 모든 글들이 한결같이 광주항쟁의 전말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와 정책이 반미주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데 일치한다. "광주학살은 정치군부에 의한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지휘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클라이막스였던 것"이라는 주장이나<sup>13)</sup> "10.26 이후 전두환 일파가 득세하여 광주학살을 주도하기까지 미국이 배후에

(13) 남상기, "조작, 은폐된 미국의 '광주 알리바이'" 류상영 외 앞의 책(1990), 64를 보라.

서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이론이 반독재운동의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는 주장<sup>14)</sup>은 물론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국의 세계정책 목적을 위해 한국 군부와 야합하는 속성을 지닌 부도덕한 나라라는 비난과 분노를 내포하는 것이었고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한미관계의 과학적 인식’ 이전에 이미 반미주의의 정서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제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20사단의 출동을 왜 승인했느냐, 또는 5.18 직후 광주에서의 특전단의 잔학행위를 모르고 있었느냐, 위컴과 글라이스틴이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따위에 대한 논쟁이나 미국정부의 해명은<sup>15)</sup> 이러한 심증적, 정서적 분노를 삭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한국 내정의 질곡에 미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정이미지를 통한 부정적 미국관이 학생 세력과 군부통치에 대한 저항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이상이 북방정책 이전까지 친미와 반미에 공통된 대미관의 형성 기제였다. 물론 북방정책이 대미인식 형성 기제를 변화시킨 결정적 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내정에 미친 영향을 축으로 해서 한국내 미국의 이미지가 형성되던 전통적 인식기제가 1980년을 거치면서 미국정부의 세계정책에 대한 관심까지 포괄하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 북방정책 이후의 외교 이미지를 통한 대미관 형성의 간접적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내정이미지를 통한 대미관과 외교 이미지를 통한 대미관의 차이가 결코 단순히 친미와 반미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 내정에 대한 미국정부의 일방적이고도 종주권적 간섭권을 전제하느냐의 여부(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동맹으로 보는)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1980년대 초반에 형성된 반미주의적 대미관은 한국 내정을 통해 투영된 미국의 역할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국지적 반미의식의 형성 기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내정에 투영되는 미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전략 일반에 대한 인식을 일단 전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정책 자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미국의 이미지를 파악하던 1970년대까지의 인식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 3. 북방정책 이후의 대미관 형성 기제 - ‘外交이미지’의 전개

북방정책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 6공정권의 등장 이후 한국 외교정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지 수년이 흘렀지만 그 용어의 시사성 때문에 북방정책을 연구하여 발표된 글들은 학술적인 것보다 비학술적인 글들이 더 많았고 시사해설적이고 정책제안적 성격이 지배적이었으며 분석적이고 이론적이지 못했다.<sup>16)</sup> 따라서 북방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용되고 있는 시사적 개념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논의는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선언한 1973년의 6.23선언이 한국내에서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계기로 보고 있으며 정부측에서

(14) 이상성, 앞의 책(1990), 55.

(15) (1989년 6월 주한미국공보원의 *BACKGROUND*에 게재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서]에 실린 광주특위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답변을 볼 것.

(16) 이석호, “한국북방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 『국제정치논총』 제28집 제2호(1988), 119. 또 같은 쪽 주1), 주 2)를 참조.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83년경부터라고 추적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오늘날의 북방정책의 내용이나 함의와 1980년대 초반까지의 북방정책의 의미는 다르다. 초기에는 한국의 대 미국, 일본정책을 남방정책으로 부르고 이에 대해 한국의 대 중국, 소련정책을 북방정책으로 불렀던 반면<sup>18)</sup>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확대되고 구체화된 북방정책은 궁극적으로 통일정책과 직결되는 대북한정책을 염두에 둔 대 소련, 중국, 동구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초기의 애매했던, 그리고 다분히 일방적이고 선언적인 초기의 북방정책과 달리 6공 이후의 북방정책은 세계 정세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구체적인 변화에 편승한 것이기 때문에 내정에 있어서의 효과를 주로 염두에 두고 대외선언에 그친 초기의 북방정책과는 일단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방정책은 시사적인 용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한국의 북방정책을 “중국, 소련, 동구 제국과 기타 공산국가 및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과 외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산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 협력관계의 발전 추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국가와의 외교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정책...”<sup>19)</sup>이라는 정도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80년대 초반의 반미주의가 주로 광주항쟁진압과 전두환정권을 묵인하고 지지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면 북방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대두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의 반미의식, 대미관은 세 가지 새로운 상황 변화에 의한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대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정치질서의 근본적 변화 기운과 관련되어 생긴 것이다. 세번째는 두번째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6공의 외교 중심 내치방식의 등장이다. 이들 모두 한국 내정에 대한 미국의 관여 행태만을 주로 통해서 미국을 보던 기존의 내정 이미지를 수정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먼저, 1980년대 초, 중반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은 한국인의 대미인식을 어느 정도 객화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반미주의에 기초한 대미관이 한국사회 변혁의 필요성과 해방 이후 한미관계사의 비판적 수정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학생, 진보적 지식인 집단에 상대적으로 한정된 것이었다면 미국의 통상압력과 그것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미주의라는 이념과 하등의 친화력이 없던 다수 대중의 친미적 인식을 약화시키거나 기존의 반미주의의 정서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40여년간 한국인 일반이 갖고 있었던 ‘베푸는 대국, 풍요한 대국’이라는 친화적 정서에 기반한 대미관은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대국주의적 압력’이 유교적 관념에서 보는 대국의 이미지와 거리가 있는 것임이 명백해지면서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수지 적자의 급증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미국의 보호주의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간 무역불균형의 심화를 시정하기 위한 제 조치와 압력으로 나타났는데<sup>20)</sup> 미국의 명분이야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역 조건의 평등이지만 이 명분이 한국인

(17) 김달중, “북방정책의 개념, 목표 및 배경”, 『국제정치논총』 제29집 제2호, (1989), 41-42. 그리고 이석호, 앞의 글(1988), 119-120.

(18) 이석호, 위의 글, 120, 주7)에서 언급된 1983년 현재 외부부의 정책자료「북방외교」 참조.

(19) 김달중, 앞의 글(1989), 43. 그리고 북방정책을 6공 이후의 대 소련, 동구 관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여기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심층적으로 주장한 글로, 최 성, “북방정책과 미국의 대한정책의 본질”, 박영호, 김광식 외, 앞의 책(1990), 204-221을 보라.

(20)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들을 참조, 박현채, “미국의 경제적 위기와 한국경제”, 문동환, 임재경

들, 특히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인들에게는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 보호권에 대한 주장이나 한국 정부에 대한 원화 평가절상 압력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상대적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사양길에 들어선 미국의 제조업 분야(섬유, 철강, 신발)의 보호정책, 그리고 금융, 통신, 보험, 운수, 광고 등의 서비스 부문과 농산물 시장의 개방요구 등은<sup>21)</sup> 한국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보도매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74년에 제정된 '301조'는 한동안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을 상징하는 압호였고 (1990년부터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이들 통상압력 무기에 의해 한국의 대미 수출품들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판정과 농축산물 개방 압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굴복은 1984년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수입 개방반대 운동을 시발로 해서 이후로는 농민들의 반정부, 반미 의식을 고양시켰다. 이와 연계되어 한국내 미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기 시작해서 변혁운동에 연관되지 않은 다수 노동세력에 의한 반미의식 역시 확산되었다.<sup>22)</sup> 즉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198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을 축으로 한 변혁운동의 반미 노선이었던 반미 정치투쟁을 반미경제투쟁으로 비화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 시각을 '대중화'시키는 명백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인식 증대라는 현상의 이면에는 미국이 한국의 맹목적 우방이라는 신화의 파괴 현상이 있었음은 물론이지만 이것이 반미 정치투쟁의 주장과 같이 미국이 곧 적이라는 전투적 대미관을 대중적으로 형성한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한국전쟁 이후의 한반도 및 주변 역학관계 때문에 심정적으로 굳어왔던 대미관 즉 미국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한국을 무조건 지원하는 혈맹이라는 친화적 태도가 쇠퇴하고 대신에 미국 역시 국제관계의 이해에 따라 냉엄히 행동하는 "거대하고 여전히 한국과 가깝지만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의 외국"이라는 인식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미인식의 객화에 도움이 된 또 하나의 추세는 소련 및 동구권 변혁을 기화로 시작된 냉전구조의 쇠퇴다. 한국인 일반의 대미인식을 전통적으로 지탱해 온 분위기는 주로 반공 이데올로기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우선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자유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이미지를 강화시켜 왔었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로는 소련과 중공이라는 악에 대적하는 선으로 미국을 보는, 일종의 윤리적 대미관이 보편화되었다. 더구나 북한과의 이념적, 군사적 대치 상태 및 대결의식은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일종의 '피보호의식'을 낳고 이러한 피보호의식이 '혈맹'이라는 정서적 용어로 포장되어 미국에 대한 한국인 일반의 의식을 친화적 내지는 무비판적인 색채로 유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군사적, 이념적 동질성에 대한 무비판적 인식과 연계된 우리의 국제정치관이었다. 한국인의 대미관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의 무비판적인 친미의식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미소간의 냉전 구조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로 지역화되면서 우리에게서는 오히려

외, 앞의 책(1986), 174-188 ; 장상환, "미국의 경제개방논리와 한국경제", 장상환 외, 앞의 책(1991), 197-235; 정운찬, "한미통상마찰-학계의 견해", 정종욱 외, 앞의 책(1989), 152-166 등.

(21)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한 시장개방압력의 경과에 대해서는 정운찬, 앞의 글, 52-57과 장상환 앞의 글, 206-215 참조. 그리고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통상마찰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으로 Paul W. Kuznets "Trade, Policy, And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8-4(winter, 1989), 24-40을 참조.

(22) 이에 대한 자세한 경과 설명은, 김성보, "80년대 반미운동사", 류상영 외, 앞의 책(1990), 85-120, 특히 94-95., 106-108을 참조.

더 치열한 냉전의식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간의 동맹과 유대는 곧 한미간의 동맹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공산권에 대한 우리의 냉전적 전 투의식의 배양과 친미적 의식의 강화는 서로 맞물리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를 국제정치적으로 단일한 세력으로 보는 우리의 단세포적 국제정치관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기조로 한 소련의 개혁과 개방, 1989년 이후 동구공산주의 정권의 잇단 붕괴로 인해 다원화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자체의 유연화, ‘공산권’이라는 국제정치적 세력의 와해 등 현실국제정치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인지되면서, 공산주의는 윤리적으로 악이며 또 단일한 국제정치적 집단이라는 의식이 약화되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의 한미관계의 전개 양상과 맞물리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속시킨다. 공산주의의 유연화 및 몰락은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국제정치관의 붕괴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미국을 국제정치에서의 ‘절대선’으로 보던 관념을 약화시키는 대신 다만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로 객화시켜 보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양하는 것이다. 1988년 이후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되어야 한다.<sup>23)</sup> 따라서 1970년대부터 단초적으로 모색되어 오던 북방정책이 1988년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국제정치권 자체의 변화 및 한국인의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sup>24)</sup>

북한과의 정치적 화해를 위한 제반 비정치적 조치, 중국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시발로 한 정치적 수교 노력은 아직 구체화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6공화국의 북방정책은 헝가리와 의 정식 수교(1989.2)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1989.11), 유고슬라비아(1989.12), 불가리아(1990.2),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1990.3), 알바니아(1991.8)등 소위 동구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마무리지었고 소련과는 1990년 9월에 정식 수교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잡았다. 한국외교의 다변화는 곧 국제정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다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집어서 보면 미국에 대한 인식의 ‘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인의 ‘밖’이 미국 일변도에서 다변화된 것이다. 특히 소련과의 수교는 이런 점에서 한국인의 대미관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에 대한 전통적 친화력을 지탱 요인이 근본적으로는 미소간의 대결을 전제로 한 한국과 소련간의 간접적 대결구조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이 구조가 파괴되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언론에서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비치는 논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위문제, 미군기지 이전문제, 한국내의 핵문제 등에 대해서도 (신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본격적인 언급과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이 점과 분명히 연관되는 것이다.<sup>25)</sup>

(23)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학생들의 비판적 미국관이 냉전적 구조의 쇠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1982년 조선일보사가 행한 20대 100명에 대한 주관식 설문문에 나타난 미국관과 비교해 보면 이런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1988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550여명의 대학생의 반미의식을 분석한 박상섭, “대학생의 반미의식-사상적, 실증적 검증”, 정종욱 외, 앞의 책(1989), 300-319에 나타난 1980년대 후반 대학생의 대미인식과 「월간조선」 85년 7월 호에 실린 “20대 100명의 앙케이트-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라.

(24) 북방정책의 배경을 따지는 기존의 논의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이석호(1988), 김달중(1989)의 앞의 글.

이것이 '미국에 대한 인식 기준의 다변화' 즉 미국에 대한 '외교 이미지'의 생성 원인이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곧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재화시키고 한국인의 대미관을 '외교이미지'에 기초한 미국의 상'을 중심으로 바뀌게 한 원인이라고 그 인과관계를 못박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왜냐하면 미국관의 변화 자체도 북방정책의 배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북방정책이 이러한 대미인식의 변화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틀잡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 4. 북방정책 이후의 대미인식기제 - 대미인식기제의 이원화

내정이미지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인식이 결정되던 시대는 사회 전체적인 친미 정서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에서 반미적인 정서와 논리가 대두하고 확산되는 시기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즉 친미, 또는 반미라는 정서적 태도가 미국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막아왔던 시기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기존의 내정이미지와 병행해서 북방정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외교이미지에 기반한 미국관은 위에서 지적한 '미국에 대한 인식 기준의 다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니만큼 당연히 내정이미지보다는 객관적인 대미인식에 도움이 된다. 물론 내정이미지에 기초한 대미인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sup>26)</sup> 외교이미지에 근거한 미국관이 내정이미지에 근거한 미국관과 병행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인식을 논할 때 친미, 또는 반미라는 정서적 기준으로 단편적인 서술을 하기에는 대미인식 기제와 대미관의 내용이 복잡해졌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대미관 내용은 크게 통상문제, 주한미군문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 미국문명,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 네 범주로 나누어진다.

먼저 통상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대미인식의 필요성과 대미인식의 변화가 대중화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통상마찰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반미논리의 외곽에 있던 노동자, 농민 등 일반 대중의 대미인식이 비판적인 인식으로 선회하는 데 있어서 대한 통상개방압력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방정책과 그 배경이 된 냉전구조의 약화에 힘입어 미국에 대한 외교이미지가 대두하면서 한국내 미국기업의 부당노동 행위, 엘범덤핑판정, 301조를 통한 수차례의 대한 경고조치 등을 겪으면서 미국의 대한 수입 견제, 우루과이라

(25) 1986-1987년에 걸쳐 「조선일보」와 「Korea Times」,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지에 나타난 한미간의 통상문제에 대한 사설의 빈도와 내용을 추적한 글로는, Yearn Hong Choi, "U.S.-Korea Trade Frictions: Content Analysis of Daily Newspapers in Korea and U.S." *Asian Perspective*, 13-1(Spr.-Sum, 1989), 117-130을 보라. 그리고 1980년대 말 이후 한미관계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소장층의 미국관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내정 상황에 비치는 미국의 역할과 영향 만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내 존재 양태, 즉 미군에 관련된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와 또한 미국 문화의 한국문화 지배 양상 등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1990년 이후에 단행본으로 나오는 반미주의적 서적(앞에서 인용되거나 언급된)들이 대개 비슷한 내용과 체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26) 조유식, "92.93년 선거에 대한 미국의 시각" 장상환 외, 앞의 책(1991), 81-100이 좋은 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5공을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이 반미주의의 고양과 연계되었다는(내정이미지로 반미주의의 대두를 설명하는) 기존의 한국내 논의를 반영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Tim Shorrock,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he 1980s and the Rise of anti-Americanism," *Third World Quarterly*, 8-4(Oct. 1986), 1195-1218을 참조.

운드의 위협 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증대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가 한국인 일반의 대미관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친미적 정서를 악화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현안이 된 우루과이라운드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노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타격을 입을 분야가 농업 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보험, 산업 전반에 걸쳐게 된다는 점이 미국의 대한 경제 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사회 전체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농민을 위주로 한 미국농산물 수입개방반대 투쟁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대미관 변화를 추적하는 것과 같이<sup>27)</sup> 사회 한 분야에 국한된 대미관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다. 특히 통상마찰은 미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입지에 대해 한국인 일반이 갖고 있었던 '강대국으로서의 미국' 이미지를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즉 '베풀어주는 여유있는 강대국'에서 '힘으로 약소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그 이미지가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곧 외교이미지를 통한 미국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한국과 외교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대중에게 확산되면서 미국을 특별한 나라로 보아오던, 기존의 내정이미지에 근거한 편파적 대미인식이 상당한 정도 수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주한미군 문제다. 한국의 대외관계가 다변화되면서, 특히 동구, 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의 정당성 자체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 자체를 국민 전체가 바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냉전구조의 쇠퇴, 이에 따른 안보논리의 비중 감소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한미행정협정의 문제), 행태, 사회적 영향, 미군기지 문제, 미군주둔의 제 영향 등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인식이 자연히 증대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와 철수 전망에 대한 주요 언론매체의 조사(동아일보사에서 1990년에 펴낸 『철해부 주한미군』)는 반미주의의 입장에 구태여 서있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양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한 예가 된다. 또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일방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관심 자체도 1990년 이후 증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단순히 반미주의적 이념에서 있는 체제저항세력의 관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sup>28)</sup> 특히 전통적으로 미군의 남한 주둔의 명분이 되어왔던 북한과 공산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 및 선전이 북방정책과 국제정치구조의 재편으로 인해서 그 설득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들의 범죄(특히 민족적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도 훨씬 더 예민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아직 일반 대중의 한미관계 인식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단계로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의 성격과 남한내 미군 보유 핵무기의 살상력에 대한 막연한 우려도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주도할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sup>29)</sup> 주한미군기지화 관련된 한국인들의 반미적 정서가 이

(27) 김성보, 앞의 글(1990). 농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국관이 80년대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반미운동의 확산 추세와 연계시켜 서술한 것으로는, 남상기, "한국인의 대미인식과 반미운동의 전망", 장상환 외, 앞의 책(1991), 347-368을 볼 것.

(28) 예를 들어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개정 방향", 류상영 외, 앞의 책(1990), 183-200. 한겨레신문을 위주로 해서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이 1990년 이후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29) 정시진, "주한미군과 자주국방", 류상영 외, 앞의 책(1990), 123-156. 또, 최미정, "한미일 군사일체화와 한반도 군사훈련", 장상환 외, 앞의 책(1991), 153-178. 특히 『말』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젊은 지식층에 파급되고 있다. 한편 이들의 글과 대비되는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제는 일부의 반미 '감정' 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단계에 왔다.<sup>30)</sup>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일단 내정이미지 시대보다 원숙해진다. 우선 내정이미지로 미국을 볼 때는 주로 한국 내정상황과 관련해서만 미국의 대한정책을 보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국내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 또는 '간섭'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제정치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즉 미국의 대한정책을 국제정치적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의 귀착점이 대 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에 북방정책의 행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인들의 대미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문명과 문화에 대한 인식은 비판적인 경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 내정이미지에 근거한 미국관과 비교해 볼 때 외교이미지에 근거한 미국관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에이즈, 마약 등 미국사회의 어두운 구석만을 골라 반미적 정서의 함양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아직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미국을 보려는 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부분적으로 미국문화를 단순화시켜 드러내거나 왜곡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문화적 관심과 객관적인 인식을 선도하는 역할은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sup>31)</sup> 다만 내정이미지에 근거한 대미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을 순수히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여유보다는 주로 반미적 관점에서(보다 정확히 말해서 찬미적 미국 문화관의 타성을 뒤집는다는 목적의식 하에서)미국문화의 비판을 통한 객관적 인식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sup>32)</sup>

지금까지 북방정책 이후의 대미인식의 변화를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대미인식 내지 반미 논리의 이중구조화 현상이 북방정책 이후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80년대 초반까지의 반미가 모두 정치적, 총체적 이미지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의 외교이미지에 근거한 반미는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경제, 사회적)것이며 미국에 대한 총체적 인상 대신에 보다 분석적인 이미지와 선택적인 이미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인의 대미

핵무기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는 차영구, "주한미군의 역할과 장래", 정종욱 외, 앞의 책(1989), 207-217을 보라.

(30) 이일형, "미군기지반대투쟁의 의의와 현황", 장상환 외, 앞의 책(1991), 179-194.

(31) 장영예, "대학교육에 뿌리내린 숭미사대주의", 류상영 외, 앞의 책(1990), 299-322. 그리고 "컬런 광고"에서 '사랑과 영혼'까지-영화를 통해 본 한미관계 100년", 장상환 외, 앞의 책(1991), 263-298을 보라. 물론 이 글들은 선전적인 색채가 강하고 결론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문화의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향되어 온 미국문화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1980년대 후반에 파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 참고로,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 한국의 기성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미국에 대한 인식 기준이 다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에 대해(친미적이든, 반미적이든) 획일적인 인상이 지배하던 내정이미지 시대와 달리 사안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 원초적인 형태이지만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미국관과 미국인 자체, 미국 문화와 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분리시키려는 경향도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eong Hyong Lee, "Korean Newspaper Editorialists'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Americans," *Asian Perspective*, 15-1(Spring-Summer, 1991), 231-241.

관이 친미적 인식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데다가 미국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정이미지에 근거한 대미관과 외교이미지에 근거한 대미인식의 병존 현상도 특히 반미적 대미인식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1980년대 후반(올림픽, 통상 마찰) 또 북방정책 이후의 한국인들의 대미인식이 반미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현상을 1980년대 초반 이후에 대두하기 시작한 單線的인 반미논리와 반미정서의 심화 현상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결론짓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각에 근거해서 북방정책의 전개 과정과 한국인의 대미인식의 변화의 상관성, 그리고 전반적인 대미인식의 변화 추세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5. 결 론

### 한국인의 대미관 논의가 한미관계의 실천에 대해 갖는 효용성

한국의 대미인식이 반미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한 이후 혹은 통상마찰 이후 한국인 일반의 반미감정이 상승하게 되면서,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친미적 정서에 편승해서 비교적 대한정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한관계에서 새로운 부담을 하나 더 안게 되었다. 비록 반미감정이 한국인 전체의 대미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는 자위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한미관계의 현안 자체가 한국내에서 대중적 관심이 될수록 그것이 곧 한국인 일반의 대미여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관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한미관계의 실천,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다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양국 관계를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일반적 대미관이 하나의 변수가 된다면 북방정책 이후의 한미관계 전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하는 것은 유리할 것이다. 먼저 미국은 북방정책 이후 한국의 대미인식기제가 외교이미지에 근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내정이미지 시대와 비교하면 반미적 인식(내지는 미국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한국사회 내에서 전체적으로는 증대했지만 내정이미지의 악화(또는 내정이미지와 외교이미지의 병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내정상황을 통한 미국 인식이라는 전통적 인식기제의 약화를 초래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내정상황에 의해 자신의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악화되던 부담에서는 일단 해방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면, 미국은 한국인들의 대미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현안별로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외교대상으로 본다면<sup>33)</sup> 한국인들 역시 미국을 하나의 외교 대상으로 보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한국인의 대미인식

(33)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한국을 일단 외교파트너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미주의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정책엘리트의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의 반미주의를 미국이 한국의 역대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한 결과로, 또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대 한국 경제 압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이 점에서 미국 역시 내정이미지 기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반미적 정서가 역사적으로 외부에 의해 피해를 입어온 결과로 생긴 피해방상의 결과(즉, 내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습성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미국이 한국의 반미주의를 보는 태도의 기저에 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적인 종속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은혜로운 형님의 동생이 누리는 특권은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언급까지 나온다. Olsen, 앞의 글(1987), 850-853.

개선을 위해서 현안별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를 갖게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또한 한국정부도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대미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미국에 대한 외교이미지의 대두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즉 미국을 선택적으로 보는 인식의 증대를 통해서, 또 한국정부의 대미외교의 자율성을 과소평가하는 전통적 내정이미지의 약화 현상은 대미관계 현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이 주도적으로, 또 국내적 여론 부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북방정책 이후의 한국인의 대미인식의 기제와 내용 변화를 포착하는 실천적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방정책은 아직 진행중인 현안이고 이것이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그려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이 글의 첫머리에 지적한대로 설문조사도 사실상 한국인의 대미인식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실천적 목적으로 다루는 논저들과 그보다 독자층이 넓은 일반언론의 논조를 통해 대미인식의 내용과 인식의 기제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 일면에서는 더 정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개 막연히 ‘한국인의 대미인식’이라고 하지만 실제 한미관계에서 실천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대미관, 대미인식은 결국 대미 여론을 선도해 나가면서 정책의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 지식인(학생)의 대미인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대미관 연구가 한미관계의 실천적 전개에 대해서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착안점이 있다. 곧, 한국의 대미관 변화와 연계해서 미국의 대한관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미지를 평면 비교해서는 안된다. 우선 한국내에서 한국인의 대미관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미국의 대한관이 대중화된 관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관은 현실적으로 미국연방정부의 대한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련되는 정책집단 내부의 대한관에 일단 국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관은 정서적 바탕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는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에서 한국의 대미관 변화, 그리고 미국의 정책 엘리트들의 한국(한반도) 이미지와 이해관계에 대한 면밀한 추적, 비교가 향후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취해야 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